


공동체 소식



삼위 일체 대축일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지혜를 깨닫고, 인내와 희망을 간직하며,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뵈옵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이우석(프란치스코), 김인자(글라라) 가정
- 차호섭(요셉), 최선운(마리아) 가정

☞ 6월 기도지향 가정은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네스)가정과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가정입니다.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지냅니다. 성모 마리아를 온 인류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교회는 전례 주년을 통하여 구세사를 기념하는 동안 성모 마리아의 축일을 지내며,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는 다릅니다. 곧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신앙인의 본보기로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성인 중의 성인으로서 특별히 공경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썰 기도 모임

- 일시 : 화요일 저녁미사 후
- 장소 : 회관
- ☞ 첫 기도 모임에 9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만간 오전 모임을 분단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첫첨례 신심미사

- 첫목요일 : 5/30(목) 오전 10시
- 첫금요일 : 5/31(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첫토요일 : 6/1 (토) 오전 10시, 미사 30분 전 목주의 기도

미주체전을 위한 일일식당

- 일시 : 6/2(일) 오후 3시 30분부터
- 장소 : 선교교회
- ☞ 티켓은 15불씩입니다. 행사분과에서 판매합니다.

기타

- 이번 주일(5/26) 구역장 회의는 없습니다. 또한 5,6월 구역 모임도 없습니다.
- 다음 주일(6/2), 사제관 및 회관 구입에 대한 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6/3(월)~6(목)까지 청주교구 사제 모임이 샌루이스 한인성당에서 있습니다.
- 6/9(일)은 Holy Trinity '본당의 날'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81	512	496/501	245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차서은(세라피나)	안광희(크리스토퍼)
	이원준(요 한)	안광민(야 고 보)
차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정병훈(보니파시오)
	안지영(가타리나)	정예찬(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수연(율리안나)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차주	박혜정(가타리나)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애찬 봉사자

금주	백문주, 최은미, 박정옥, 안이, 박정자
차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박옥희, 전현교

헌금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박희영(카타리나)
차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드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5/12	104명	475불	1050불
05/19	96명	340불	1,81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한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랑의 친교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미사를 봉헌하며 우리 또한 삼위일체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머물기를 청합니다.

성화해설

삼위일체 (엘그레코 1577-1579, 유체, 마드리드 프라도 국립박물관 소장, 스페인)
삼위일체는 성령과 성부 성자의 수직적인 구도와 더불어 성부와 성자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을 배치한 수평적 구도로 그려졌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부의 모습은 슬픔과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하신 말씀이 연상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이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잠언 8,22-31 <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혜는 태어났다. >



주 님 의 이 름 은 온 - 땅 에 어 이 이 리 요 하 - 신 고

- 당신 손수 만드신 저하늘과 달과 별들 우러러보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주시나. ◎
- 천사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 밑에 거느리게 하셨나이다. ◎
- 크고 작은 온갖가축과 들에서 뛰노는 짐승들하며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물길 따라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 2 독서 : 로마 5,1-5 <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복 음 : 요한 16,12-15
<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



세 마

“한 치과의사가 평생 실천한 하느님 사랑”



지난 5월 6일 서대문구의 한 허름한 치과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34년 동안 전국을 돌며 수많은 한센인을 찾아가 무료로 진료를 한 이 병원의 원장님에게 한센인 대표들이 감사패를 전달하러 온 것입니다.

원장님의 이름은 강대건 라우렌시오입니다. 서울 대신학교에 다닌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은 ‘아~ 그 선생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강 원장님에게 무료로 치료를 받았고,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는 강 원장님께서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하신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강 원장님은 한사코 자신의 선행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큰 상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묵묵히 그저 자신의 운명처럼, 평생을 한결 같이 봉사만 했습니다. 딸들조차 병원이 너무 허름하여 친구들에게 여기가 우리 아빠 병원이라고 단 한 번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 원장님께서 봉사를 시작하신 계기는 아주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편 병원에 갔는데 한센인 한명이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돈을 집어 던지며 내쫓았습니다. “여기는 너 같은 문둥이가 오는 곳이 아니다. 병원 문 닫게 하려고 작정했냐!” 그때 힘없이 돌아서는 한센인의 뒷모습을 본 강 원장님은 한센인을 위한 봉사를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오래전에는 한센인들이 병원 진료는 엄두도 못냈을 뿐 아니라, 시내버스도 못 타고 잠잘 곳도 없어 공동묘지 옆에서 자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강원장님의 열정은 34년 동안 식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쫓긴 한센인의 모습으로 강 원장님에게 다가오신 건 아닐까요.

강 원장님이 감사패 전달식에서 하신 말씀은 오랫동안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립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봉사에서 얻은 기쁨과 보람이 커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봉사를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요한 16,13)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등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갈라 5,22-23 참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사랑과 일치와 모범입니다. 사랑과 일치는 모든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교리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뜻을 길입니다.

- 서울 대교구 허영엽 마리아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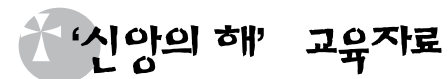


마중물

“자녀의 전설이 되는 부모”

“난폭한 술주정뱅이 늙은 아버지와 매우 모성애가 깊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로부터는 매를, 어머니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당한 포악한 매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남편의 매질에 시달리면서도 아들을 감싼 어머니의 사랑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난폭함은 소년에게 강한 증오심과 살인충동을 심어줬고 어머니의 인내와 보살핌은 그에게 강인한 극기심과 사랑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그는 고기도 먹지 않고 커피나 술도 마시지 않는 좀 별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끝내는 그 증오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발작하는 바람에 온 유럽을 피로 물들인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에릭슨이 히틀러의 정신을 분석하여 쓴 「히틀러 어린 시절의 전설」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전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3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35.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바침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바침은 아기 예수님께서 주님께 속한 만아들이심을 보여 줍니다. 예언자 시메온과 한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은 기다렸던 구세주를 맞으러 옵니다(비잔틴 전통은 이 사건을 ‘주님 맞이’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서는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만민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인정되었으나, “반대 받는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언된 고통의 날카로운 칼은 또 하나의 봉헌, 곧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 앞에 준비하신” 구원을 베푸실 저 완전하고 유일한 십자가의 봉헌을 예고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29항).

36.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은 어떤 신비를 드러냈을까?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님과 만나는 장소요 현장이라는 신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일생의 많은 기간을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사셨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 육체노동의 생활, 하느님의 율법에 순명하는 유대인의 종교 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시기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부모에게 순종하셨으며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루카 2,52)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31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